

언어구분 KOR

논문구분 원저/구연

논문분야 척추

논문제목 흉요추부 질환의 재수술의 원인 분석

영문제목 **A Study about cause of Revision Thoraco-lumbar spine surgery**

발 표 자 양성석

책임저자 신병준

저 자 신병준, 구형모, 양성석, 이재철

기 관 명 순천향대학서울병원

서론 : 흉요추부 척추 수술에서 재수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재수술이 필요했던 경우의 시기 및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 흉요추부 척추 수술에서 재수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재수술이 필요했던 경우의 시기 및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결과 : 처음 수술 6주 이내 재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추간판 탈출증이 14례, 수술 부위 감염이 19례, 부적절한 위치의 고정기기 제거 또는 추가고정 6례, 추가적인 감압술을 시행한 경우 4례, 감압술 후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1례였다. 6개월 이내 재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추간판 탈출증이 12례, 인접 분절 질환이 1례, 수술 부위 감염 6례, 추가적인 감압술을 시행한 경우 1례, 신경초종이 재발한 경우 1례였다. 6개월 이후에 재수술한 경우는 재발성 추간판 탈출증이 25례, 인접 분절 질환이 43례, 수술 부위 감염 4례, 고정 기기의 제거나 추가 고정 14례, 추가적인 감압술을 시행한 경우 4례, 감압술 후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가 6례, 불유합 7례, 재발성 종양 3례, 척추후만증이 진행된 경우 4례, 척추 측만증이 진행된 경우 1례였다. 혈종이나 신경증상에 의한 진단적 수술의 경우 전체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한 환자에서 재수술한 경우는 0.12%, 후방 고정술의 경우는 2.3%, 후방 감압술의 경우는 1.10%였다.

결론 : 수술후 급성기에는 수술 부위의 혈종이나 신경 증상에 의한 진단적 수술의 경우와 감염에 대한 세척과 변연 절제술이 많았고, 장기적으로 추시시 유합이 잘 이루어진 경우는 인접 분절 질환이나 퇴행성 병변으로 추가적인 감압술과 유합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고, 불유합으로 수술한 경우와 고정 기기의 파손이나 불편감으로 고정기기 제거와 추가 고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수술 초기 환자의 신경학적 증상과 수술 부위의 상태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퇴원후 추시시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유의하면서 재수술의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과 철저한 수술 술기로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acknowledgment :

재수술, 흉요추부 질환